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8>

요코하마 공동주택단지

공익 살린 저층 아파트 '소통의 장'으로

요코하마=글·사진 윤현석 기자

지난달 22일 요코하마의 아파트 단지를 보기 위해 요코하마 신도심과 구도심을 지나 도쿄도와 인접해 있는 요코하마 시 츠즈키(都筑)구 고히쿠(港北) 뉴타운을 찾았다. 약 3000ha의 면적에 2000년 초반부터 조성해 들어갔던 이 뉴타운은 도쿄도와 요코하마시의 중간에 위치해 도쿄도의 베드타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신도심이다. 대부분 30~40대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10층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고 도로는 넓고 반듯했다.

이 뉴타운의 특징은 아파트의 단지 수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도로 및 공원 등 공공공간, 기타 및 상업시설의 비율이 3:3:3:1 정도로, 적절한 배치가 특징이었다. 비교적 저렴한 패널로 지어진 단독주택은 고령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마당 안에는 반드시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있었다. 공공공간인 골목길을 주차장으로 사유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로의 경우 상당수가 차도 위를 가로질러 보도를 설치하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차와 사람이 섞이지 못하게 했다. 설치비용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자동차의 속도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이다. 구도심에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거나 차량은행 시간대를 선정해 자동차를 제어하고, 최근 개발된 신도심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 도시공간을 이원화시킴으로써 초기 투자비 및 관리비 증가, 복잡한 공간구조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범죄나 재해 예방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고호쿠 뉴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단지는 고호쿠 센터플레이스(Centerplace)다. 지난 2006년 완공된 이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7~10층 사이의 아파트 높이와 주차장이었다. 외곽 공동주택이 20~30층 이상으로 들어서고 층수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낮은 용적률은 이색적인 수밖에 없었다. 도심은 고층화하면서 외곽은 저층화로 유도하는 일본의 도시개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은 고층화해 효율적으로 쓰고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싼 외곽은 저층화해 배치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외곽개발을 맡은 공기업,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토지주택공사나 광주도시공사 등이 수익보다는 공공성을 더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는 가능하다.

가이드를 맡은 제일교토 김중철(53)씨는 이를 "아파트의 용적률을 낮추면서 1인당 점유면적은 좁히고 공유면적은 넓혀 제한된 공간을 함께 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분석했다.

다음으로 눈이 간 것이 주차장이다. 지하 2~5층까지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는 달리 이곳은 지면주차장이다. 지면주차장이긴 하지만 1개 지면에 3대를 주차할 수 있다. 1개 주차면 지하에 자동차 2대를 주차할 수 있게 했으며,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때나 주차할 때는 차량 버튼을 누르면 지정 공간이 위로 올라오도록 돼 있다.

지하주차장처럼 연료를 허비하거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필요 없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한 것이다.

단지 내는 철저히 자전거와 보행자를 우선해 구성돼 있다. 차량은 주차장에만 세우도록 했으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조그만 공원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로 가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 주민들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다. 인근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가던 가정주부 무미코(45)씨는 "이곳에 산 지 5년째이며, 장을 보고 오다가 이웃을 만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적도 있다"며 "초등학교도 주변에 있어 아이들을 키우며 살기 편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자체가 1층과 2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2층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이 초등학교에는 물

택지·공공공간·상업시설 적절한 배치 차도 위 보도 이중설치 속도·안전 추구 아파트 단지 통행 자유로운 열린 공간

론 답이 없으며, 마치 아파트 단지 내 건물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이 단지의 또 다른 큰 특징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차단기로 차량 진입을 막고, 경비원이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 없다. 이 단지를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일본 건축기준법 제86조, 연 단건축물설계제도기준, 시가지환경설계제도에 근거한 이 단지 내 공공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또는 이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휴먼이나 풍조·쓰레기 버리기, 보도나 오르막길에서는 자전거 주차 및 운행 금지, 그 외 관리조항이 정하는 사항 등 금지된 것만 안 하면 된다.

여기에는 이 공공공간을 조성할 때 일부 극비나 사비 등이 투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외국인들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 열린 공간으로 하면서 오히려 범죄 등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배어 있다. 물론 단지 내 녹지도 적체적소에 잘 배치돼 있는 등 전체적인 단지 구성도 훌륭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편한 공간이 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배제하고 막아 자신들의 공간으로 하려는 단지가 아니라 도시 전체와도 어울리면서도 어떤 이에게도 개방된 공간으로 아파트단지를 꾸뒀다는 것이다.



요코하마 시 츠즈키(都筑)구 고히쿠(港北) 뉴타운 내 아파트 단지 센터플레이스 내 공공공간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과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주부들. 이 단지의 특징은 10층 내외 아파트로 구성됐고 주거동 사이에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이 있으며 외국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개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차면 1면당 3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센터플레이스의 주차장. 수준 높은 운전습씨와 초기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연료 낭비나 범죄 예방, 공간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요코하마 실버인재센터

지난달 22일 오전 7시 뉴스에서는 일본의 완전실업자가 34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실업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안고 있는 난제인 것이다. 특히 고령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각 도시마다 일을 할 수 있는 고령자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단순히 복지를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줌으로써 스스로 자립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1980년 문을 연 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고령자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요코하마의 출연기관 실버인재센터를 이날 오전 방문했다.

시가 1000만엔을 출연해 설립된 센터는 지난 2010년 설립 30주년을 맞았으며,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임시 단기간 취업 또는 가벼운 업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강습회 및 연수회 개최나 사업 보급 개발 등도 맡고 있다.

노인 회원 1만1800명

공공·민간기업 취업 알선

고령자 기능강습·연수회

근무인원은 38명으로 지난해 예산 42억 3611만엔(수탁사업 수입 40억6280만엔, 취업활동에 따른 계약금액, 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비 1억5145만엔)으로 회원만도 1만 1800명에 이르고 있다. 고령자들은 연회비 1200엔을 내면 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문제점이라면 지난 2006년 계약금액이 47억2300만엔(회원수 1만5822명)에서 지난 2009년 42억1800만엔(1만133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받주체를 분석해보면 지난 2009년 공공기관 7.6%, 외국기관 9.2% 민간기업 71.6% 개인 11.6% 등으로 민간기업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주요 일자리는 주차, 청소, 공장 내 작업, 맨션 관리, 배포, 판매, 경리, 가사, 보육, 개호, 전기 보수점검, 강사 등으로, 노인들에게 배분된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해 연금 수령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모리 도시무 차량 겸 경영기획과장은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해 설명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며 "고령자의 비율이 이미 15%를 넘어선 입장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은 어느 일본 도시나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힐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p>상무점 향토사랑 영화사랑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p> <p>1관 별관 내부수리중</p> <p>2관 별관 내부수리중</p> <p>3관 비스틀리 (12세)</p> <p>4관 블랙스완 (18세)</p> <p>5관 사랑이무서워 / 웨이백 (12세)</p> <p>6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p> <p>7관 로맨틱 헤븐 (12세)</p> <p>8관 레드라이딩 후드 / 자괴표 롤링스타즈</p> <p>9관 킹스 스피치 (12세)</p> <p>10관 월드인베이션 (12세)</p>	<p>1관 로맨틱 헤븐 (12세)</p> <p>2관 월드인베이션 (12세)</p> <p>3관 사랑이무서워 (15세)</p> <p>4관 블랙스완 / 비스틀리 (12세)</p> <p>5관 월드인베이션 (12세)</p> <p>6관 킹스 스피치 (12세)</p> <p>7관 레드라이딩 후드 (15세) / 그대사랑합니다 (15세)</p> <p>8관 웨이백 (12세) / 랭크 (전제)</p> <p>9관 자괴표 롤링스타즈 / 달빛길어올리기 (15세)</p> <p>10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p>	<p>MEGABOX</p> <p>M관 킹스 스피치 (12세) 최고급관</p> <p>2관 마이블랙 미니드레스 (15세)</p> <p>3관 로맨틱 헤븐 (12세)</p> <p>4관 코모닝 에브리엔 (15세) / 월드인베이션 (12세)</p> <p>5관 사랑이 무서워 (15세)</p> <p>6관 블랙스완 (18세) / 달빛길어올리기 (15세)</p> <p>7관 레드 라이딩 후드 (15세)</p> <p>8관 비스틀리 (12세) / 그대사랑합니다 (15세)</p> <p>9관 히어 에프터 (12세)</p>	<p>CINUS</p> <p>1관 킹스 스피치 (12세)</p> <p>2관 블랙스완 (18세) / 비스틀리 (12세)</p> <p>3관 히어에프터 (12세)</p> <p>4관 달빛길어올리기 (15세)</p> <p>5관 그대사랑합니다 (15세)</p> <p>6관 월드인베이션 (12세) / 레드라이딩후드 (15세)</p> <p>7관 마이블랙미니드레스 (15세)</p>
---	--	---	---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씩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황금주차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